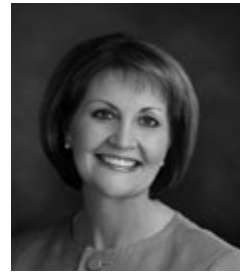




지역 소식



여러분, 입을 열어 참여하고 간증하십시오



본부 청녀 회장과 상호부조회 회장, 한국을 방문하다

지난 4월 23일 수요일, 본부 청녀 회장 오스카스 자매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버튼 자매가 인천 공항에 도착했다. 여독을 느낄 새도 없이, 그들은 한국의 역원들을 만나러 곧장 광주와 대구로 내려갔다. 일본에서 역원 훈련 모임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피로할 것이 분명했지만, 오스카스 자매와 버튼 자매는 회원들을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했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이들은 광주, 대구, 서울 남선교부, 서울 선교부 지역에서 포커스 그룹 모임, 선교사 훈련 모임, 역원 훈련 모임 및 특별 모임을 열었고, 회원 가정과 와드를 방문하기도 했다. 4박 5일간의 모든 일정을 끝낸 26일 일요일, 오스카스 자매와 버튼 자매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교회 본부로 돌아갔다.

보니 엘 오스카스 본부 청녀 회장

청녀 역원 훈련 모임이 열린 2개 지역에는 대구도 포함되었는데, 이곳에는 청녀 지도자와 함께 청녀들도 초대받았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중점 내용은 새로운 교과 과정의 목적, 운영 원리, 효과 등 '청소년 새로운 교과 과정, 와서 나를 따르라'에 대한 것이었다. 오스카스 자매는 새로운 교과 과정에 대해 짧게 설명한 뒤, 특별한 영감에 따라 청녀들을 단상 앞으로 불렀다. 그는 청녀들에게 새로운 교과 과정의 좋은 점을 직접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녀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 직접

준비하면서, 청녀 회장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공과 내용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기도 더 쉬워졌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공과 시간에 우리가 서로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간증이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청녀들의 설명이 점차 자신의 간증으로 변하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두가 영을 느끼고 크게 감동했다. 오스카스 자매 역시, “제가 계획했던 말보다 청녀들에게서 들은 이 말이 더 중요하다.”며 청녀들의 발표에 감탄했다.

오스카스 자매는 기도, 경전, 성찬, 봉사, 성전이라는, ‘하이파이버’라 이름 지은 5가지 강조 사항을 전했다. 개인적인 경험담을 나누며 청녀들의 신앙에 용기를 실어 주려 애썼다.





오스카스 자매는, “본부 청녀 회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매우 당황스러웠고 큰 두려움에 압도당했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곧 평안을 얻고 부름을 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자, 참석자들은 오스카스 자매를 한층 더 친밀하게 느끼게 되었다.

포커스 그룹 모임 시간 동안 청녀 지도자들은 청녀들을 도우며 겪은 생생한 경험을 전했으며, 오스카스 자매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한국의 교육환경과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청녀들과 지도자들이 겪는 어려움, 새로운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의 사용 기술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또 청녀 지도자들은, 청녀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 드리는 감사를 나누었다. 오스카스 자매는 한국의 청녀 지도자들이 청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참석자들 역시 오스카스 자매가 지닌 청녀와 지도자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포커스 그룹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수성 와드에 방문한 안동 지부 청녀 회장 배정옥 자매는 모임 후 눈물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2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보니 무척 바빠서 단 한 명뿐인 우리 청녀에게 잘해 주지 못해 항상 미안함을 느꼈고, 저 자신의

부족함으로 좌절하기도 했어요. 오늘 모임에서 오스카스 자매님을 만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좋은 청녀 회장이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잘해 보자!’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이제 저희 지부가 이사 가면, 청녀 공과방이 생긴대요. 저를 위한 시기에 저를 위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린다 케이 버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린다 케이 버튼 자매는 한국과 깊은 인연을 지니고 있다. 2007년부터 3년간 남편 버튼 형제와 서울 서 선교부 회장 부부로 봉사했던 것이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버튼 자매 부부의 그리운 얼굴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다.

역원 훈련 모임에서 버튼 자매는 지도력의 원리를 가르쳤다. 특히 그는 참석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유도하며 함께 답을 찾아갔다. 참석자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하며, 훌륭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그는 “가정과 교회에서 부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시는 영적으로 준비될 때 주어집니다.”라며 지도력의 첫 번째 원리로서 ‘영적인 준비’를 강조했다.

그가 두 번째로 나눈 지도력의 원리는, 평의회의 원리였다. 그는, “우리가 모여 협의할 때 우리에게 계시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참석자들이 그 자리에서 작은

평의회를 열어 보도록 연습하는 시간을 주었다. 참석자들은 여러 소그룹을 만들어 오늘날 가정이 겪는 어려움, 부름을 수행하며 겪는 시련 등에 대해 활발히 토의했고, 실제로 훌륭한 의견과 합의를 도출해냈다.

모의 평의회 후, 한 참석자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 모든 평의회 일원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동참하려 하는 데에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비록 정확한 해결책을 모르더라도, 함께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느낀 점을 나누었다.

버튼 자매는 지도력의 세 번째 원리로, 주님의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 특히 가정 방문 교육에 대해 다루며 훈련 모임을 마무리했다.

“가정 방문 교육을 포함하여, 우리는 부름을 수행할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고를 바꾸고, 지침서를 연구하고, 회장단이 함께 협의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들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후, 소수의 역원을 모아 긴밀하게 토론하는 포커스 그룹 모임에서 다루어진 주요 주제는, ‘청녀회를 졸업하는 독신들이 상호부조회에 잘 적응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부적응의 원인으로, 활동적인 청년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청년 또는 초등학교 회장단으로 부름받는 것, 가정 방문이나 가사 모임에서 청년 독신 성인과 기혼 회원의 교류가 없다는 점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도와 부모와 같은 헤아림, 부름과 책임의 조정 등이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논의되었다. 버튼 자매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가르치기보다는, 의견을 경청하고 지도자들이 생산적인 토론을 하도록 도왔다.

모임에 참여했던 서울 남스테이크 서초 와드 전집해 자매는 “버튼 자매님의 말씀을 듣고 영을 느끼면서 그분이 우리 상호부조회를 위해 계시라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부름을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라며 버튼 자매님의 말씀에 감사를 표했다.

특별 모임

오스카슨 자매와 버튼 자매는 토요일 저녁, 모든 구도자와 회원들을 초대하여 특별 모임을 열었다.

오스카슨 자매는 공과 시간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입을 열어 간증하도록 독려하며, 오스카슨 가(家)의 개종 이야기를 전했다.

“1,800년대 스톡홀름의 부유한

가정집에서 일하던 요한나라는 소녀는, 세탁을 담당하던 동료에게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소녀는 개종 후 자신의 형제자매와 친구들을 복음으로 인도했고, 그들 중 하나가 바로 제 남편 오스카슨 형제의 할머니였습니다. 이름조차 남아 있지 않은, 한 겸손한 여성이 요한나에게 입을 열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 남편의 가족을 포함하여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스카슨 자매는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교리와 성약 64:33)”라는 구절을 나누며, 주위 사람에게 간증을 나누도록 권고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돌보도록 요청했다.

버튼 자매 부부는 어린 시절 배운 좋은 노래, 좋은 경전 구절들이 방황과 어려움에 봉착한 개인들에게 위로와 가르침이 되었던 다양한 일화들을 소개했다. 한 가지 예로, 버튼 부부는 그들의 애창곡을 직접 불렀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한국의 포크송, ‘정든 그 노래’였다. 이들은 악보도 없이 한국어로 열창하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버튼 자매는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가족 관계를 강화하도록 행동할 것을 독려하며, “인생의 고난 시기에, 우리의 가정은 피난처”라는 말을 전했다.

왼쪽 페이지 위 사진부터 시계 방향으로:
대구 스테이크 센터에서 포커스 그룹 모임에 참석한 오스카슨 자매, 영등포 와드에서 초등학교 소녀와 대화하는 오스카슨 자매,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열린 포커스 그룹 미팅에 참석한 버튼 자매, 역원 훈련 모임에서 활발하게 토론하는 역원들, 한국 노래를 열창하는 버튼 자매 부부, 서울 서 선교부 귀환 선교사와 포옹하며 눈물을 흘리는 버튼 자매

모임이 끝난 후, 서울 서 선교부에서 봉사했던 몇몇 귀환 선교사들은 그리운 버튼 자매의 옷깃을 차마 놓지 못하며 눈물을 쏟았다. 한편에서는 초등학교 소녀들과 청년들이 오스카슨 자매가 가진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그와 다정하게 눈을 맞추었다. 회원들은 이 두 주님의 종이 방문한 것에 감사하고,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헤어졌다. ■



김해 와드의 새로운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너희 온 생애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교리와 성약 18:15)

이 정전 구절처럼, 한 명의 구도자가 침례받아 회원이 되고 성전 의식까지 받는 과정을 지켜볼 때, 그들 곁의 선교사와 와드 회원들은 큰 감동과 기쁨을 느끼곤 한다. 그런데 만약, 네 가족이나 되는 신회원들이 신앙을 싹틔우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실제로 이 일은 부산 스테이크 김해 와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다. 김해 와드에는 최근 1~2년간 침례받은 신회원들이 네 가족이나 있다. 이중 세 가족이 작년 가을에 성전에서 인봉되었으며, 한 가족은 성전에 갈 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들의 개종 이야기와 간증을 전한다.

죽은 후에도 이 따뜻한 느낌이 함께하길



첫 번째 가족: 이창수 형제, 이은희 자매, 이효진 자매, 이형준 형제

이은희 자매의 가족은, 다른 지역에서 선교사들에게 영어를

배우며 교회를 접했다. 그러나 만나던 선교사들이 귀환하면서 교회와의 인연은 끊어지는 듯 했다. 김해로 이사오고 나서 이 자매의 머릿속에 선교사가 문득 떠올랐고, 인터넷으로 교회를 찾아냈다. 이들 부부는 회원들에게 큰 호감을 느꼈으며, 더불어 복음 교리들이 특히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느꼈다. 이 형제는, “교회에 오면서, 제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느꼈지요.”

특히, 이 형제는 장인 어른의 별세를 보며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 진지하게 사색한 뒤, 침례받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침례 후 이 가족은 성전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되는 성스러운 경험을 했다. “죽은 후 싸늘한 느낌이 아니라 성전에서 맛본 그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를 잘 선택했다는 느낌도 받았지요.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살면 그게 진짜 천국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라고 전한다.

이 느낌은 무엇인가요?

이민우 형제는 교회보다는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선교사를 만나기 시작했고, 정 자매는 교회뿐 아니라 심지어 영어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선교사를 만날 때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특히 정 자매는 복음을 배울 때면,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의 침례식에서, 정 자매는 마음속에서 어떤 강력한 느낌을 느꼈고, 선교사에게 그 느낌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선교사는 성신이 함께하며 정 자매를 인도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이 부부는 침례를 받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민우 형제의 가족은 서울 동스테이크 길음 와드에서 침례를 받고 김해로 내려왔다. 처음에는 지역이 낯설기도 하고, 매주 교회에 나오기 위해 생활을 바꾸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지역의 와드든 지부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계속해서 교회에 나갔다. 가정의 밤을 하면서, 또 가족 간 대화가 늘어나면서 가족이 점차 단합되어 가는 것이 그들 가정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고 그들은 말한다.

“성전에서 자녀들이 해의 왕국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의 천사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감격스러운 마음에 가족이 다 함께 울고 말았어요. 성전은 정말 특별한



두 번째 가족: 이민우 형제, 정은수 자매, 이규배 형제, 이지윤 자매

곳이에요.”라고 말하며, 정 자매는 해맑게 미소지었다.

서로의 진실한 모범에 따라

딸 김효린 자매가 교회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신앙 생활의 경험이 있던 박혜진 자매는 신중하게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이 가진 진실한 신앙 생활이 떠올랐다. 박 자매는 남편 김태화 형제와 상의한 뒤, 여동생이 속해 있다는 그 교회에 가족이 함께 갔다.



세 번째 가족: 김태화 형제, 박혜진 자매, 김효린 자매

그리고 한 달만에 침례를 받았다. 박혜진 자매에게 큰 모범이 되었다는 여동생 박원진 자매는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언니의 가족이 교회에 오기를 오랫동안 간구했다고 한다.

작년 가을에 침례받은 김태화 형제의 가족은, 이제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박 자매는 계속해서 다른 회원들의 모범으로부터 배우며 발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 가족은 교회 회원들의 신앙 생활 방식에 많은 감명을 받아요. 이분들은 스스로 교리를 공부하고 단상에서 자신의 간증을 전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일 때면, 성찬식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다른 회원의 훌륭한 경험을 들을 때, 저도

그분들처럼 행동하고, 모범을 보이고 싶어요.”

그들의 바람대로 김태화 형제 가족은 곧 의로운 모범과 영향력을 행사했다. 동생 박원진 자매의 남편 박상운 형제는 아내의 신앙 생활을 10여 년 동안 지켜보면서도 교회에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올해 초 어떤 계기를 통해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침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 망설였다. 이때, 김태화 형제 가족의 개종 소식이 들렸고, 이들의 신앙 이야기는 박 형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래서 지난 5월, 박상운 형제는 침례를 받고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왔다.

가족을 바로 세우고

이재달 형제는 이전에 다른 교회에 다니며 믿음을 가졌던 경험이 있다. 원활한 사회 생활을 위해 술, 담배를 하면서도 믿음과 가족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린 후, 이 형제는 이 교회로 인도되었고, 그는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말한다.

“성공하겠다는 일념이 결국 가족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까지 주는 것 같아요. 욕심을 지우니 마음이 안정되고, 이것이 가족의 행복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 교회는 가정으로서 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침례는 개인적인 특권인데 비해, 가족 인봉은 가족이 함께 받는 특권입니다. 회장 저편에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족 인봉은 제게 위안이 되고 극복하는 힘을 줍니다.”

영원한 가족에 대해 말하는 이



네 번째 가족: 이재달 형제, 강현주 자매, 이은재 자매, 이은송 자매, 이은울 자매, 이은상 형제

형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前) 김해 지부 회장이었던 남상병 형제는 회원과 구도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회원 중 한 명이다. 그의 노력을 칭찬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회원분들이 신앙 생활에 적응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듯이 저도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제 부족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한 것이 이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막 출발한 이 신회원 가족들은 신앙의 열매를 맛보기 시작했다. 성전은 영원한 가족을 가능하게 하는 희망이 되었고, 가족의 단합과 기쁨을 이루는 원천이 되었다. 이 네 가족은 복음대로 살고자 노력했고, 그들의 시야는 점차 넓어져 이제 영원한 관점을 향해 있다.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김해 와드는 활기가 넘친다. 한국 땅에서 주님의 사업은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

상반기 연합 독신 성인 모임 총정리

청년 및 독신 성인들의 소식이 궁금했다면, 이번 호에서 그 활기찬 움직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올해 상반기에, 후기 성도 청년 및 독신 성인들은 자주 모여 우정을 쌓고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2월, 광주 종교 교육원 지역 신입생 환영 및 친목 모임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 간, 대전 스테이크 센터인 선화 와드에서 광주 종교 교육원 지역의 청년들이 모였다.

이 모임은 올해 성인이 된 신입 독신들을 환영하고, 종교 교육원과 학생회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 모임이 열리기까지, 청년 독신과 지도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2월 초, 해당 지역의 스테이크 및 지방부 회장단과 독신 담당 고등평의원, 청년 독신 지도자들이 배덕수 장로의 감리 하에 대구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후 이들은 각 지역에서 모든 청년 독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하며 강력한 영의 느낌을 받았고, 그 영은 대회 기간 내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라며 성공적인 대회 소식을 전했다.

4월, 유타 주 한인 청년 대회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열린 유타 주 한인 청년 대회에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를 배정하여 단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세미나를 통해 종교 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교수법 강의를 통해 훌륭한 미래의 교사로서 준비되었다.

3월, 부산 종교 교육원 지역 연합 청년 독신 모임

3월 29일 토요일부터 30일 일요일까지 80여 명의 청년 독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종교 교육원 지역 연합 청년 독신 성인 모임이 경주 보문 청소년 수련원에서 1박 2일로 진행되었다.

모임에 참석하길 권유하는 등, 준비할 때부터 ‘구조하라’는 선지자의 권고를 실천했다.

‘구조하라’는 대회 주제처럼, 모임은 개인 자신을 영적으로 발전시키며,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구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토요일에는 부스 활동, 토론, 데이트 활동 등을 하며 우정을 쌓았고, 일요일에는 안식일 정규 모임대로 성찬식과 주일학교,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고, 청년 독신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CES) 위성방송을 시청하며 기록한 안식일을 함께 보냈다.

대구 스테이크의 박지에 자매는, “토요일 밤에 숙소에서 하루 단기를

참가자들이 밝은 얼굴을 마주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유타, 아이다호, 일리노이, 워싱턴, 캘리포니아 주 등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110여 명의 한인 청년들이 참석했다.

대회 주제인 “너는 먼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32)를 토대로, 첫째 날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함’, 둘째 날은 ‘나 자신을 강화시킴’, 셋째 날은 ‘서로에 대해 알아감, 넷째 날은 ‘다른 사람들 굳게 함’이라는 각각의 소주제를 세워 모임을 마련했다. 청년들은 인생 그래프 그리기, 자신의 성격을 표현하기, 스카우트 야외 활동, 무도회, 대화법 활동, 복음 토론, 간증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와 다른 이를 알아가고 서로의 간증을 굳게 하며, 청년들은 서로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그들은 반짝였고 행복했다. 이 청년 대회는 매년 계속해서 해외의 한인 청년들을 한 장소로 모으고, 저마다 다른 삶의 페이지에 있는 독신들을 하나로 모아 그리스도에게 더욱 나아가도록 도울 것이다.

3월 독신 성인 합동 성찬식과 5월 독신 성인 대회



지침서 2권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성인 회원은 만 18~30세의 '청년 독신 성인'과, 31세 이상의 '독신 성인'으로 분류된다(124쪽 참조).

지역 칠십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서울 경인 지역 결혼 코디네이터인 배동철 형제는 만 31세 이상의 '독신 성인'을 위한 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스테이크 내에서 독신 성인은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서울 경인 지역의 모든 독신 성인이 함께하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합 스테이크 모임에서 교제의 범위를 넓히고 신앙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포래들을 만나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서울 경인 지역에서는 1분기에 한번 복합 스테이크 독신 성인 합동 성찬식과 활동 모임을 하고 있다. 3월 30일에 신당 와드에서 합동 성찬식이 있었으며, 5월 3일에서 5일에는 2박 3일 간의 독신 성인 대회가 열렸다.

이 독신 성인 대회는 강원도 홍천의 한 펜션에서 열렸으며, 독신 성인들은 체육 활동, 그룹 데이트 활동과 바베큐

단수에도 불평하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개종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영동 스테이크 박지에 자매는, “이 대회에 참석하면서,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모임에서 만난 청년 및 독신 성인들은, 독신 모임에 참석할 자격이 아직 있다는 것에 대해 즉, 미혼이라는



파티 등을 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즐겼다. 특히, 김창호 장로 부부, 정태걸 장로 부부의 간증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고민과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각 스테이크 독신 성인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이 모임을 준비했으며, 몇몇 청년 독신 성인 지도자들도 도우미로서 이들을 지원했다. 참석자는 총 57명이었다.

여러 곳에서 모인 개성 강한 독신 성인들은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참석자들의 마음에는 감사함과 편안함이 가득했는데, 마지막 날 아침 갑작스런

현재의 상태에 대해 조금은 서글퍼하면서도, 같은 신앙의 토대를 가진 친구들과의 모임을 통해 우정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해했다. 그들은 같은 독신으로서 느끼는 즐거움과 어려움을 서로 나누며 위로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원한 가족을 꾸리고 싶어하는 소망을 공유하며 함께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었다.

올해 하반기에도, 하계 청년 대회를 비롯하여 좋은 모임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 모임들은 우정과 추억을 쌓는 좋은 기회들이 될 것이다. 용기를 가진 많은 독신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

청소년 활동 페이지

청소년 활동 페이지(<https://www.lds.org/youth/activities?lang=kor>)에 접속하여 활동 아이디어를 얻는다.



계획할 때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간단하게 다룬다. 청소년에게 질문하기 - 함께 의논하기 - 활동을 계획하기 등 3단계에 걸쳐 함께 계획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2) 목적을 가지고 계획함:** (1)번의 훈련에서 다른 3단계 활동 계획 과정을 적용하여 실제로 계획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단계 순서에 따라 하나씩 논의하고 적으면, 아이어링 회장이 말하는 '계획 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3) 활동: 페이지 첫 화면 상단의 돋보기 표시를 클릭하여 활동을 검색하거나, 하단의 활동 카테고리에서 주제를 클릭하여 그 속의 활동 예시들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봉사라는 주제에는 '기술을 배운 다음 봉사한다'라는 활동이 있다. 이를 클릭하면 활동의 목적과 방법을 자세히 볼 수 있고,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의 '지식 나만의 가치관 경험'에 연결됨을 알 수 있다. 해당 활동을 내 달력에 추가하고 싶다면, '계획표에 추가'를 누른다. 항목을 모두 채운 뒤, '구조 활동'을 누르면 일정에 저장된다.

(4) 계획표: 특정 연도와 월을 선택하면 계획표에 추가한 활동들을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5) 아이디어 제출: 여러분에게 새로운 활동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곳에 적어서 교회 본부로 제출할 수 있다. 교회 본부에서 그것을 검토한 후 계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

청소년과 지도자들은 자주 '상호 향상 모임 때 뭐하지?'라는 고민에 빠진다. 교회 본부에서 연초에 야심차게 공개한 2014 신규 페이지, '청소년 활동 페이지'는 이 고민의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 페이지는 청소년 활동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일정을 세우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무엇보다 로그인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메모와 일정표의 저장 기능 때문이다. **(1) 훈련:** '효과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방법'이라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의 가르침을 전한다. 이 말씀은, 활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가족

암으로 투병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의외의 편지를 받았다.

인천 스테이크 권민자 자매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던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서로 간증을 나누며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고, 주님의 사랑을 매일 느꼈다. 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까지 함께 보낸 10년 중에 가장 영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봉사에 시간과 열을 쏟았다. 특히 남편과 나는 청소년 고문으로 봉사했는데, 아픈 남편을 돕는 중에도 나는 청소년 활동에 계속 참여했다. 청소년들은 공과 시간에 떠들거나 잠이 들기도 하고, 가르침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는 참 막막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봉사에서 오는 커다란 기쁨을 통해 나는 많은 위안을 받았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고민에 빠졌다.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자녀들의 마음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하고 슬퍼할 때 어떻게 위안과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언젠가 사춘기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할까……. 여러 걱정들이 다가와 나를 압박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을 느끼도록 나를 일깨우셨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그분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타내신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의외의 편지를 받았다.

“두 분께서 보여 주신 모범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님께서 저희들을 훌륭하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두 분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가르쳤던 한 청년이 의젓하게도 이런 편지를 건넨 것이다. 세상에서 들었던 어떤 말보다 사랑스러운 위안에 나는 감격하고 말았다. 또한 주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 내게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아이들을 홀로 걱정하며 스스로를 의지할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셨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 깊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감격과 감사함으로 압도되어 나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때로 힘겨워 투정부리고 싶거나 눈물이 날 것 같을 때,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을 돌아보며 나는 나 자신을 달랜다.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친구를 주님의 천사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내게 사랑을 보내신다. 그들과 나, 그리고 우리의 자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의 가족이다.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함

토시유키 마쯔이 장로
복지 봉사 선교사

대 학생인 토모코에게 “당신의 장애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묻자 “내가 대하는 사람이 나를 이해한다면 장애가 없다고 느끼지만,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면 장애가 있음을 느낍니다.”라고 답했다. 그녀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해 보편적으로 지닌 감정을 알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란 선천적인 특질, 발달상의 독특함, 병, 사고 등의 이유로 사회에서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그들과 그들의 장애를 이해하려는 관심을 보인다면 그들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

자신은 장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과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나는 남미 볼리비아와 페루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 교훈을 배웠다. 볼리비아의 엘 알토 공항에 내렸을 때, 나는 일본과 무척 다른 풍경에 당황했으며, 스페인어를 몰랐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곧바로 알게 되었다. 여행 중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현지 통역사였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통역사”가 되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역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토모코는 반에서 노트 필기를 해 주고, 필요할 때에는 서명을 해 주는 등 도움을 주던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녀가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것은 내가 여행 중에 인정을 갖고 나를 대해 주던 지역 사람들 속에서 내가 느꼈던 안전함과 유사한 감정이었을 것이다. 나는 특히 리마 페루 성전에서 만났던 형제 자매들 속에서 마치 집에 돌아온 것과 같은 영을 느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장애가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 그들 역시 “통역사”가 필요한데 그 통역사는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절친한 친구이고, 그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이해하는 사람이며, 그들의 어려움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이다. 비록 여러분이 “통역사”가 될 수 없을지라도 “인정 많은 눈”을 지닌 이웃은 될 수 있다.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장애에 대한 이해는 우리 이웃을 이해하려는 소망에서 시작한다. 그런 다음 우리가 그들 처지가 된다면 겪게 될 어려움과 불편함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다.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휠체어나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하지만, 장애를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례 1: 다른 사람의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의 효능

발달 장애의 한 형태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는 파악하기 어려운 장애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나는 15년 전 교육 센터에서 상담자로 일할 때 2학년생인 켄을 만났다. 아이는 항상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일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활달한 아이였다. 내가 켄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녀는 켄의 과잉 행동과 충동적인 행동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정기적으로 정신 건강 진료소를 다니고



있었다. 나는 몇 차례 상담을 통해 학교에서 켄이 일으키는 문제를 다뤄야만 하는 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켄의 교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제안했다. “켄에 대해 매일 한 가지 좋은 점을 찾아 부모에게 보여 주는 켄의 노트에 그 좋은 점만 적어 주시겠습니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켄의 어머니가 켄을 데리러 올 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켄의 어머니는 켄이 노트를 보여 주면 그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교사는 기쁘게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3달 뒤, 켄의 어머니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만나러 다시 왔다. 나는 그녀가 내게 한 말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더이상 정신과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내 아들의 선생님이 이제 저를 상담해 주시니까요.”

나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는다. 켄의 이야기를 통해 아마 여러분도 그것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장애가 있는 여러분의 이웃에게 그와 같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이웃의 좋은 친구이자 “통역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2: 진정한 친구가 되기

마지막으로 나는 한 감독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 장애가 있었던 이케다 형제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의 감독은 그가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남아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기도했다. 그런 후 그는 최근에 와드로 이사 온 타카타 형제에 대해 생각했다. 다음 주 그는 타카타 형제를 만나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나는 형제님이 이케다 형제님의 참된 친구가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이후로 이케다 형제 옆에는 항상 타카타 형제가 있었다. 마침내 타카타 형제가 선교 사업을 나갔지만, 이케다 형제의 신앙은 계속되어 더 강해졌다.

나는 여러분도 주변에 이케다 형제와 같은 사람이 있으리라 믿는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

*모든 이름은 가명임

한국 성도의 소리

선지자를 만나 얻은 특별한 확신

간절한 소망과 신앙, 그리고 주님의 선지자에 대한 확신과 지지를 통해 부모님은 기도의 응답을 얻으셨다.

순천 지방부 순천 지부 최성준 형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신입생이 되었고, 2014년 2월 23일 순천 지방부 대회에서 벨기세텍 신권의 장로 직분에 성임되었다. 우리 가족은 “집안에 겹경사가 났다.”며 기뻐했다. 누군가는 평범하게 생각할지 모르는 일이지만, 성인이 되고 평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겐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 나는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다. 태어난지 18개월이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뇌종양이라는 병명을 받았고, 모든 수술이 잘된다 해도 5년 정도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받았다. 부모님은 그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결정했다. 1994년에 태어난 나는 1996년에 1차 수술과 2차 수술을, 그리고 머리를 꺾매는 재수술 등 총 다섯 번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또 수술 후 남은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방사선 치료도 여러 차례 받았다.

1차 수술이 끝나고 2차 수술을 기다리던 시기, 잠실 체육관에서 한국 서울 지역 대회가 열려 당시 선지자였던 고(故) هنگ클리 회장님께서 방한하셨다. 우리 가족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 부모님은 나를 구급차에 태워 서울 지역 대회 장소로 데려가셨다.

지역 대회 후 هنگ클리 회장님이 퇴장하실 때, 부모님은 나를 업고 선지자에게 다가갔다. 그분은 내 머리를 한 번 쓰다듬어 주시며, “오, 귀여운 아이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부모님은 선지자를 만난 뒤 마음에 영이 임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위로를



받았다. 그때 부모님이 받은 특별한 느낌은 내 평생을 통해 실현되었다.

나는 6개월간의 병원 치료를 잘 끝낸 후 퇴원했고, 만8세가 되어 침례를 받았다. 청년이 되어 아론 신권의 집사직에 성임되었고, 이후로 교사, 제사, 그리고 벨기세택 신권 장로직에 성임되기에 이르렀다.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청소년 시기의 학교 생활도 불편한 점이 있었고 또래보다 더 작은 체격이지만, 나 또한 이 복음이 주는 축복을 누리 왔다. 세미나리 가정학습반을 통해 복음을 공부했고, 신권 소유자로서 봉사할 기회와 축복을 받으며 조금씩 성장해 왔다. 부모님의 소망과 기도를 통해 부모님은 영을 통해 내가 나오리라는 느낌을 받으셨다. 나는 부모님의 이러한 모범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었다. 특히, 선지자에 대한 부모님의 신뢰와 지지를 배웠다.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돌보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오류를 정정합니다

2014년 5월호 리아호나 연차 대회 특별호와 6월호 지역 소식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87쪽의 8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의 일부가 삭제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함: 결국 그는 행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집에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 6쪽의 2번째 문단, 2번째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여러분 중에 자신의 신앙을 지켜 내야 하는 경험이나,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대까지 견뎌 내야 하는 경험을 아직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언젠가 그런 상황에 처할 날이 올 것입니다.
- 서울 선교부 안광영 장로의 소속 와드를 금천1 와드에서 금천2 와드로 정정합니다.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기사 제보를 받습니다

지역 소식에서는 “한국 성도의 소리” 코너의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간증을 보내 주세요.

이메일: kah_liahona@daum.net

전화: 02)2232-1441 (내선: 564)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자매 9명/장로 3명



김수정 자매

강릉 지방부
태백 지부
중국 홍콩 선교부



김연섭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장위 와드
부산 선교부



김예지 자매

강서 스테이크
김포 와드
워싱턴
패더럴웨이 선교부



김한중 장로

광주 스테이크
풍향 와드
서울 선교부



박선빈 장로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대전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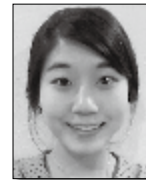
박지수 자매

부산 스테이크
영도 지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



백혜원 자매

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



오하늘 자매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 선교부



이승연 자매

영동 스테이크
분당 와드
스페인
바르셀로나 선교부



이종률 장로

대구 스테이크
김천 와드
대전 선교부



주혜연 자매

대구 스테이크
안동 지부
서울 선교부



채은비 자매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광주 스테이크

총장 와드와 풍향 와드가 통합되어 총장 와드로 명칭 변경
총장 와드 감독: 최양선(전임: 최양선, 윤영통)

서울 남 스테이크

회장: 권영준(전임: 허병석)

1보좌: 이수환

2보좌: 정인성